대전광역시 시범납골당
계룡산 구암사
극락처럼 편안하고 아름답습니다.
042)822-2377 홈페이지 www.guamsa.or.kr

"할머니들 왔다, 할머니들 왔어!"

함박눈이 소리 없이 내리던 1월 22일 치악산 밑 원주시 금대리 계곡. 소쩍새마을 식구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나같이 마중 나왔다. 함박눈보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제천 문수회 노보살들. 보살들이 다녀가면 다음날부터 맛있는 반찬이 나온다는 것을 알기에 더욱 반가운 표정이다. 자기 할머니에게 응석 부리듯 소쩍새 식구들이 문수회 노보살들에게 매달리며 좋아서 어쩔줄을 모른다.

◇"몸 아픈 세간의 부처님들을 섬기며 여생을 회향해야지." 소쩍새마을 식구들이 맛있게 먹을 것을 생각하며 밑반찬용 콩을 고르는 문수회 노보살들의 표정이 밝기만 하다.

8년째 소쩍새마을 돕는

문수회 노보살들

"봉사위해 어디든 간다" 즐거운 황혼!

청소 빨래는 물론 김장·농사까지

박법보화(78), 박선의화(68), 임정공심(63), 김정덕화(76) 등 문수회 회원 40여 명은 하나같이 60대 후반부터 70대까지의 노(老)보살들이다. 남편, 자식 뒷바라지에 평생을 보낸, '고왔던 젊은 시절'이 있었던가 기억조차 희미한 할머니들.

청소년기에는 일제 치하의 어려움 때문에 학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결혼한 이후에는 주린 배를 움켜쥐며 6·25전쟁후 어려운 시기에 집안을 일으켜 세운 기둥이었다. 한창 중년의 나이에는 어떻게든 자식 공부 시키고, 결혼시키고자 애쓰다 보니 다른곳에 신경쓸 겨를조차 없었다. 남편 잘되고 자식 잘 되는 것이 오로지 전부였던 할머니들. 노후 준비는 꿈도 꾸지 못한 세대들이다.

비록 풍족한 생활의 노후설계는 못했지만 문수회 회원들은 여느 할머니들하고 다르다. 얼마 남지 않는 삶, 부처님 가르침 따라 아름답게 회향하고 싶다는 원력 하에 노년의 하루하루를 온통 봉사활동으로 채우고 있다.

8년째 이들은 소쩍새마을 등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 보살행을 펴고 있다.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부처님 법 만나기 더욱 어렵기에, 이생을 마치기 전 수많은 세간의 아픈 부처님을 섬겨 선근을 심고 싶을 뿐라고 입을 모은다.

행상하며 장학금 모아

문수회가 생긴 것은 지금부터 8년 전. 일을 하다 보니 회장 감투라는 것도 써본다는 선의화 보살은 그 때를 다음과 같이 떠올린다. "임정공심, 김정덕화 보살,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사람이 거동이 어려운 이웃집을 찾아가 빨래와 목욕을 해주고 밥을 먹여주자는 생각을 실천에 옮긴 게 시작이예요. 문수회의 활동은 평소 친한 불자끼리 친목을 도모하자는 정도에서 시작했지 남들처럼 번듯하거나 뜻이 큰 봉사는 아닙니다" 못내 겸손해 했다.

그 무렵 문수회 회원들은 신문을 통해 스님이 소쩍새마을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때부터 이들은 매달 음력 20일 차비 5천원과 도시락을 들고 소쩍새마을을 찾았다. 굳이 음력 20일에 맞춘 것도 사찰 가는 날을 피하기 위해서다.

돈을 많이 가진 것도, 특별한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닌 노인들이기에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든 다 했다. 봄이면 밭에 나가 고추며 파를 심어주고, 가을이면 김장을 담가주었다. 쌀 가마가 들어오면 몸으로 져 나르고, 청소와 빨래는 물론, 밑반찬을 만드는 주방일까지 내 집일처럼 했다.

"2, 3년 지나자 우리 일이 조금씩 제천불교어머니회 회원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회원이 조금씩 늘어나자 회비도 걷기 시작했다. 하나같이 돈 나올 곳이 없는 노보살이기에 1만원씩 내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집밖에서 활동을 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솔찮았다. 이 때문에 5년 전부터 법보화, 청량심, 선의화 보살은 행상 일을 시작했다. 70이 넘은 노인들이 전라도까지 버스를 타고 가 미역과 멸치를 떼오고 국수, 세제 등 팔 수 있는 물건이면 무엇이든 사다 손수레 뒤에 싣고 다녔다. 밖에서 만나면 돈이 들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갖는 모임도 법보화 보살 집에서 법보화 보살이 마련한 밥과 국을 먹으며 이것 저것 의논했다.

"사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뜻있는 일을 하게 된 것은 박법보화 보살의 공이야. 대단한 사람이지." 회원들이 한결같이 칭송하는 박보살은 행상을 시작할 당시, 아들 사업이 망하는 바람에 평생 일군 과수원과 집까지 빼앗길 지경에 처하게 됐다. 남들 같으면 홧병으로 쓰러질 판이건만 박 보살은 부처님 일은 꼭 해야 하는 거라며 억척스럽게 장사를 계속했다. 오히려 계돈을 부어 모은 오백만원을 장학회 종자돈으로 쓰라고 선뜻 내놓았다.

수재민에 쌀·부식 제공도

법보화 보살은 "내가 없이 살면서 남을 돕는 거지, 형편이 나아지고 나서 돕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다. 이같은 법보화 보살의 모범은 제천 불교 어머니의 정신적 힘이 되었다. 이렇게 노보살들이 알뜰히 모은 돈과 행상을 하며 모은 돈이 4천만원이나 됐다.

문수회 회원들은 소쩍새마을을 돕는 이외에도 매주 금요일 제천장애인복지관에 나가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식사 준비를 해 주고, 하소리복지관에서는 한 달에 2번 노인 150명을 위한 밑반찬 제공, 점심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 지난해 강원도가 수해를 당했을 때는 된장과 고추장, 고춧가루, 국수 100 박스, 쌀 40가마를 수해주민들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우리 문수회의 목표는 장학금 1억원을 모으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뛰어야 겠지?"

고령들이라 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부처님 가르침 따라 여생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원력으로 그저 열심히 뛰겠다고 서로를 바라보며 환한 격려의 미소를 짓는다. 주름 가득한 얼굴이지만 그렇게 고울 수 없다. (043)646-6321

글= 강유신 기자 shanmok@buddhapia.com
사진= 박재완 기자 jypark@buddhapia.com